

시각장애인의 학습 경험 리디자인

삼각김밥

2018102095 김명철

2018102121 유창현

2018102143 주창돈

추가 인터뷰

- 시각장애인 대상 도서 서비스 앱 '룩스데이지' 개발자
 - 이메일 질문
- 시각장애인 지원 앱 'Be My Eyes' 시각장애인 사용자
 - 위 앱을 사용한 직접 통화

추가 인터뷰

- 시각 장애인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.
- 시각장애인학교의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.
- 사회복지사의 인력 부족 및 복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.
-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극대화해야 한다.
-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을 강화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.

POV

-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극대화할 방안이 필요하다.
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은 외부인을 낮설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.
-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.
의외로 시각장애인들이 앱에 대한 접근성 부분에서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.
- 시각 장애인 공동체 내에서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.
왜냐하면 시각장애인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.

HMW1

-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극대화할 방안이 필요하다.
-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할 수 있을까?

HMW2

-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. 의외로 시각장애인들이 앱에 대한 접근성 부분에서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.
-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문제들을 공유 및 해결하도록 이끌 수 있을까?

HMW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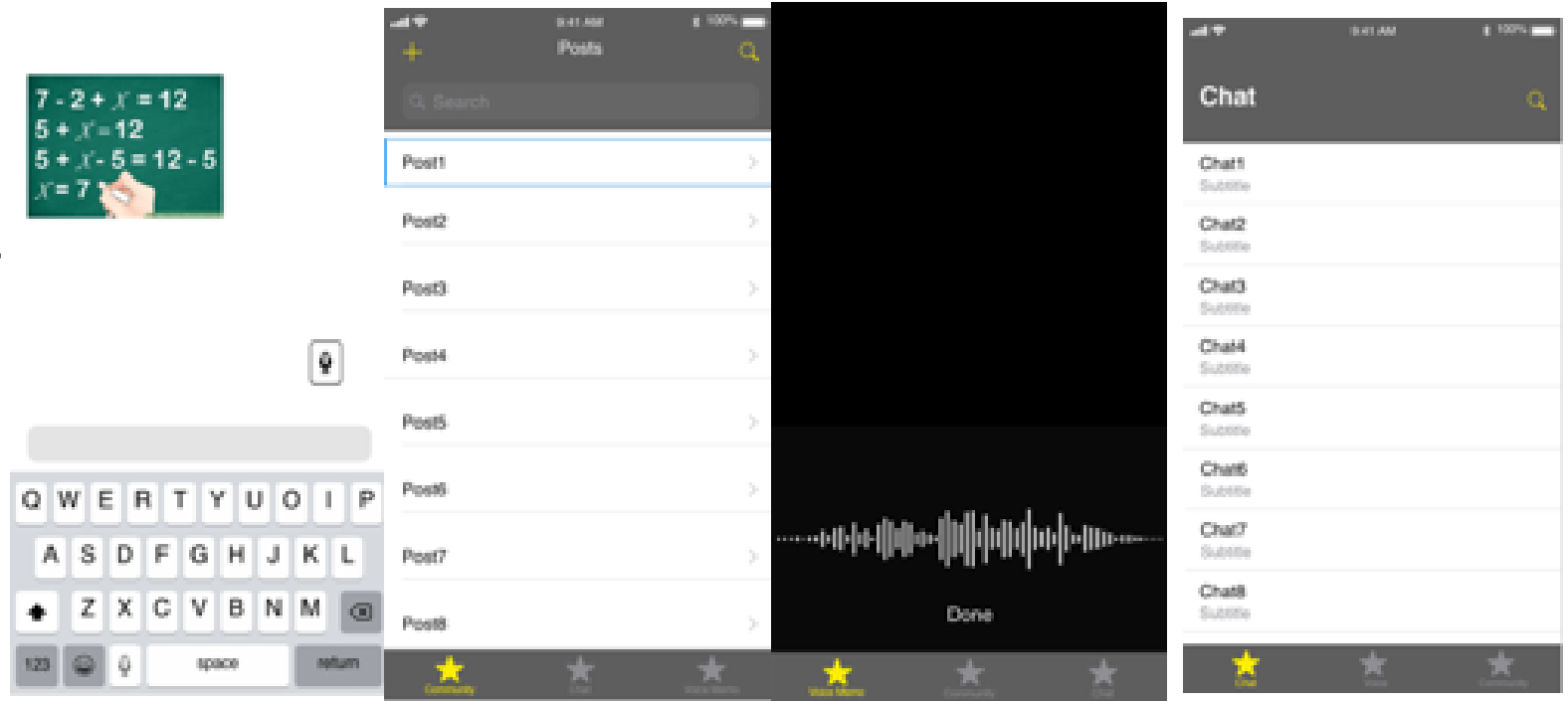
- 시각 장애인 공동체 내에서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.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.
-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 학생들끼리 신나고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??

경험 프로토타입

- 일반인에게 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이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방안과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.

- Adobe Xd

- 사진 및 음성녹음
- 채팅 서비스
- 커뮤니티



경험 프로토타입

- 프로토타입에 게시물의 표현, 다양한 분야의 구분 등 세세한 부분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
- 시각장애인들은 시력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직관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

경험 프로토타입

- 의사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개인 채팅, 음성 녹음 채팅을 제공하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가정이 유효했다.
- 새로운 가정
- 시력이 약한 시각장애인들을 고려해서 시각적인 디자인에 크기를 키우는 등의 직관성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.

요약

-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면서 문제 정의에서도 시각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걸 깨달음
- 학습을 필요로 하는 특정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
- 새로운 가정을 바탕으로 최종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
- 앱의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구성